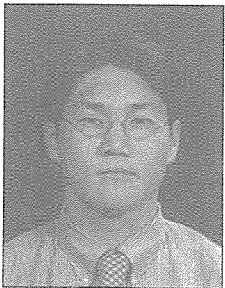


주인의식으로 참여한 자원봉사 새로움 삶의 경험

정은구/자원봉사, 서울치대 치의학과 4년



FDI에 자원봉사자로 지원

1996년 어느 쌀쌀한 봄날, 3학년 강의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윤홍렬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분은 어떤 행사에 대한 소개를 하러 오셨다고 했다.

“내년 9월 서울에서는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외국치과의사선생님들이 오시고, 국내 선생님들도 참여하시는, 치과행사로서는 세계 최대규모의 행사입니다.”

이것이 행사에 대한 개요이고,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였다.

자원봉사자 지원서에 서명을 했다. 통역과 수술 분야에 지원을 했다. 지원한 분야에 가능한 한 배치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FDI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행사규모와 자원봉사자 수에 내심 놀라

2차, 3차 교육을 거치면서 FDI 및 자원봉사자 규모에 내심 놀랐다. 여러 개의 본부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나의 당초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 나에게 배정된 일은 행사 3일 전부터 공항에서의 내빈 마중이었고, 행사기간 중에는 다른 일을 주겠다고 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보람 느껴

자원봉사 첫 날, 9월 2일,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에 나갔다. 첫날은 조금 무료했지만 첫 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입국하는 내빈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의 양도 늘어났다. 피곤

한 가운데서도 한 명을 안내할 때마다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행사 자원봉사를 통해 시야 넓어져

자원봉사 기간동안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무엇보다도 '확대된 시야'였다. 학교와 병원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좁았던 시야를 넓힐 수 있었으며, 특히 각국에서 오신 내빈들과의 만남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외에도 우리 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움마저 느끼게 했다.

또 하나의 소득은 여러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각 치과대학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행사를 위해 모여든 자원봉사자들간의 만남은 반갑고도 편안한 것이었다. 우리 공항팀은 서울치대 2명, 연세치대 3명, 경희치대 2명, 그리고 치대의 2명으로 상당히 조화로운 모임이 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글로 옮기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쉬웠던 적도 많았고, 즐거웠던 뒷풀이도, 기분나빴던 경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람찬 순간들도 있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지난 기억을 되살려보니 마치 다른 세상이라도 다녀온 것 같다.

이러한 크고 좋은 행사에도 눈 앞의 작은 손해가 두려워 참석 못한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에 대한 편을 구차하게 늘어놓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우리의 주인의식 가운데 참여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의 발전도 있고, 우리의 위상도 높아질 것임은 당연하다.

본부장과 동료 자원봉사자에게 고마움 전해

갖가지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윤홍렬 위원장님, 권원중 선생님, 각 본부의 책임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함께 일했던 여러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